

학습영역	작품	작가	쪽수
유형 연습③ 고전시가	자술(3)	이옥봉	2
유형 연습③ 고전시가	금루사(0)	민우룡	-
유형 연습③ 고전시가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0)	작자 미상	-
유형 연습③ 고전시가	님이 오마 하거늘(7)	작자 미상	3
실전 모의고사① 고전시가	저곡전가팔곡(7)	이휘일	6
실전 모의고사② 고전시가	오우가(6)	윤선도	9
실전 모의고사③ 고전시가	정읍사(7)	어느 행상인의 아내	11
실전 모의고사③ 고전시가	가시리(11)	작자 미상	14
실전 모의고사③ 고전시가	배소만처상(5)	김정희	18
실전 모의고사④ 고전시가	봉선화가(8)	작자 미상	20
실전 모의고사④ 고전시가	잠노래(9)	작자 미상	23
실전 모의고사⑤ 고전시가	사제곡(4)	박인로	26
유형 연습① 현대시	금붕어(4)	김기림	28
유형 연습① 현대시	나비와 광장(9)	김규동	30
실전 모의고사① 현대시	향수(7)	정지용	33
실전 모의고사② 현대시	음지의 꽃(6)	나희덕	36
실전 모의고사② 현대시	겨울 바다(7)	김남조	38
실전 모의고사③ 현대시	추억·'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3)	정진규	41
실전 모의고사③ 현대시	결빙의 아버지(9)	이수익	43
실전 모의고사④ 현대시	강우(7)	김춘수	47
실전 모의고사④ 현대시	곡비(8)	문정희	50
실전 모의고사⑤ 현대시	소야의 노래(6)	오장환	53
실전 모의고사⑤ 현대시	자화상2(7)	오세영	55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년 수능특강 / 해설 1~2쪽)

가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雪色白於紙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擧鞭書姓字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莫教風掃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好待主人至
- 이규보, 「설중방우인불우(雪中訪友人不遇)」		
나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近來安否問如何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月到紗窓妾恨多
꿈속 뉘 만약에 자취 있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門前石路已成沙
- 이옥봉, 「자술(自述)」		

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상황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과장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두 소재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가 청자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 지시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눈빛'은 계절적 배경을, (나)의 '달'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
- ② (가)의 '땅'과 (나)의 '사창'은 공간적 배경으로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 ③ (가)의 '이름'과 (나)의 '자취'에는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 ④ (가)의 '주인'과 (나)의 '뉘'은 화자가 떠올린 대상으로 현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⑤ (가)의 '채찍'은 행위의 도구를, (나)의 '모래'는 반복적 행위의 결과물을 떠올리게 한다.

3. <보기>는 한시의 일반적 구성 방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맥락에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행	구	역할
1행	기(起)	어떤 대상을 보거나 떠올리면서 일어난 생각을 제시한다.
2행	승(承)	기(起)에서 제시한 생각을 이어받아 보충한다.
3행	전(轉)	기존의 시상을 틀어 전환한다.
4행	결(結)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서,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 ① (가)는 눈을 보고 '종이'를 떠올리면서, (나)는 대상의 '안부'를 떠올리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군.
- ② (가)는 '종이'와 관련된 행위를, (나)는 떠올린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이어 가고 있군.
- ③ (가)는 '바람'이 부는 상황을, (나)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림으로써 기존의 시상을 전환하고 있군.
- ④ (가)는 '종이'와 '바람'의 공통적 의미를, (나)는 '사창'과 '꿈속'의 유사한 상황을 연결해 시상의 흐름을 하나로 묶고 있군.
- ⑤ (가)는 '바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는 '꿈속'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군.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년 수능특강 / 해설 2~3쪽)

인간상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세속화라는 한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조선 시대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영웅이나 재자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대부분이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소설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에서 세속적인 욕망, 통속적인 인간됨, 방탕한 허무주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인물들이 형상화된다.

이러한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는 기인(奇人)이나 이인(異人), 거지, 광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기울였던 연암 박지원의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어떤 이가 본래 김홍연의 행적을 잘 알아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에 의하면 김은 곧 왈짜였다. 왈짜란 대개 여항의 허랑방탕하고 물정 모르는 자를 일컫는 말로서 이른바 검객(劍客)이나 협객(俠客)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그는 젊은 시절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무과에 합격했으며, 힘이 세어 범을 때려 잡거나 좌우 옆구리에 기생 둘을 끼고 몇 길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쩌쩌하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본래 부유하여 돈을 물 쓰듯 하였고, 고금의

[A] 유명한 서첩(書帖)과 좋은 그림, 칼이며 거문고며 골동품, 기이한 꽃과 풀 따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혹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천금(千金)을 아끼지 않았으며, 준마(駿馬)와 송골매를 늘 좌우에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늙어 머리가 세었으며, 자루에다 끌과 정을 넣고 다니며 명산에 두루 노니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올랐고 백두산에 두 번 오른바 그때마다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 이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였다.

‘발승암기(髮僧菴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는 김홍연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글 전체의 대의는 이름의 덧없음에 있다 하겠지만, 인용한 대목은 당대 실존했던 ‘왈짜’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연암의 눈에는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한 인물의 생애가 안쓰러웠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는 범속(凡俗)한 성격의 인물이나 화자가 나오는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오는가 가다가 건넌산 바라보니
거뿔희끗 서 있거늘 저야 임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B]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열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모조록 밤이기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과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들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시고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송(石崇)이 죽어 갈 적 누거만재(累巨萬財)
[C]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하물며 청춘 일장몽(一場夢)에
백화난만(百花爛漫)하니 이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이하리

[B]에는 입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 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부박(浮薄)해 보이는 범속한 행위를 날낱이 그려 냄으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마저 희화화된 표현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의 노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C]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거부(巨富)인 석송과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하여 인생무상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의 어조가 은근하게 이어지는데, 그 대상이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어서 결국에는 화자 자신이 향락주의에 경도된 범속한 인간임을 드러내게 된다. 이 역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학적 경향의 일단이다.

이와 같은 범속한 인간형의 출현은 실존 인물이든 문학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든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상업 및 유흥 문화의 발달,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 애정과 같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각성 등이 당대의 사회적 기류를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문학 작품을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읽는 것도 그 실상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이전의 문학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삶을 그려 내는 경향이 우세했다면,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 이념의 권위에 대해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적 삶에 더욱 가까운 인간을 형상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가치를 보여 주는 이런 인물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문학적

근대에 다가서는 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는 문학 자체의 가치를 타락시켰다.
 - ② 조선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상이 다양해졌다.
 - ③ 조선 후기의 시가 갈래는 여타 갈래에 속하는 작품의 세속화를 이끌었다.
 - ④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반응의 산물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였다.
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구별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생소하리라 판단되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인물의 특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행적들을 배열하고 있다.
 - ④ 타인의 전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한 인물의 인간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개별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삶의 궤적을 보여 주고 있다.
6. [B]와 [C]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와 [C]는 모두 반어적 목소리로 삶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 ② [B]와 [C]는 모두 병렬적 진술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정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C]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상대방에게 간청하는 어조가, [C]에서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⑤ [B]는 여성 화자가 남성 청자에게, [C]는 남성 화자가 여성 청자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7. ㉠을 고려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김홍연이 자신의 취미를 위해 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두한 천박한 부자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군.
 - ② [B]에서 임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C]에서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석송의 고사를 언급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를 배경으로 유흥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겠군.
 - ④ [A]에서 김홍연이 바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B]에서 화자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적 삶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의도의 소산이겠군.
 - ⑤ [A]에서 김홍연이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과 [C]에서 화자가 유흥의 고사를 언급하며 먹고 노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대 유흥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하겠군.

정답 및 해설

• 운문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④	4	②	5	⑤
6	②	7	④	8	⑤	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①
16	④	17	②	18	⑤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⑤	24	⑤	25	②
26	④	27	③	28	④	29	④	30	③
31	②	32	④	33	①	34	③	35	⑤
36	⑤	37	①	38	①	39	②	40	⑤
41	④	42	④	43	④	44	⑤	45	④
46	②	47	③	48	⑤	49	③	50	⑤
51	④	52	②	53	④	54	③	55	④
56	③	57	②	58	①	59	⑤	60	①
61	②	62	④	63	③	64	②	65	①
66	①	67	③	68	⑤	69	④	70	⑤
71	④	72	⑤	73	④	74	⑤	75	①
76	③	77	②	78	⑤	79	①	80	③
81	⑤	82	③	83	③	84	⑤	85	④
86	⑤	87	⑤	88	③	89	④	90	④
91	④	92	③	93	①	94	③	95	①
96	②	97	②	98	③	99	③	100	③
101	④	102	③	103	①	104	②	105	⑤
106	④	107	⑤	108	⑤	109	⑤	110	①
111	④	112	④	113	④	114	③	115	④
116	④	117	①	118	①	119	②	120	④
121	④	122	①	123	③	124	②	125	④
126	⑤	127	①	128	④	129	③	130	①
131	④	132	⑤	133	③	134	⑤	135	②
136	④	137	②	138	②	139	④	140	

해설

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와 같이 두 개의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을 견주어 다른 하나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비교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비교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현실에서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한 이 구절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② (나)에는 ‘문 앞 돌길’이 ‘모래’로 변할 것이라는 과장된 상상력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가)의 경우, 쌓인 눈이 바람에 날려 사라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판단만이 나타나고 있어, 그것을 과장법이라 말할 수 없다.
- ④ (가)에는 화자가 ‘바람’을 청자로 삼아 ‘기다려 주렴.’이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나)의 경우, 특정한 청자에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부탁하거나 지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동적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화자의 상황이나 행동이 드러난다. 하지만 특별히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를 대비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주인’은 화자가 만나고 싶어 하는 대상이고, (나)의 ‘녘’은 화자의 꿈속에서 돌길에 ‘자취’를 남기는 존재이다. (가)의 ‘주인’이나 (나)의 ‘녘’은 화자가 떠올린 대상이 맞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눈빛’을 통해 사계절 중 겨울이 배경임을 알 수 있으며, (나)의 ‘달’을 통해 하루 중 한밤중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땅’은 화자가 찾아간 ‘주인’의 집(마당)으로, 화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장소이다. (나)의 ‘사창’은 ‘첩(妾)’으로 표현된 여성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가)에서 ‘이름’을 쓰는 것은 ‘주인’에게 자신이 찾아왔음을

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다. (나)의 ‘자취’는 ‘꿈속 닢’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나 입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혼적으로 남은 것이다.

- ⑤ (가)에서 화자는 ‘채찍’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채찍’은 도구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나)에서 ‘모래’는 ‘꿈속’ ‘문 앞 돌길’이 변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자취’를 남기는 행위의 반복이 형성한 결과물인 것이다.

3.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 ‘종이’는 이름을 써서 주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바람’은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두 소재의 의미가 상충하는 면이 있으므로 공통적 의미를 연결하여 시상의 흐름을 묶어 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눈빛’을 보고 ‘종이’를 떠올리면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입의 안부를 떠올리면서 질문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종이’에 무엇을 쓰는 것처럼 눈 위에 무엇을 쓰려 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이 입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솔직히 밝히면서 시상을 이어 가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쓴 이름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꿈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다른 감정이나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의인화된 ‘바람’을 청자로 삼아 기다려 달라고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마음이 주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꿈속’에서 닢이 돌길 앞을 하도 다녀 돌길이 모래로 변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 문학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속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으므로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상이 다양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삶이 세속화의 흐름을 보여 준다는 취지이지만, 이것이 문학의 가치를 타락시켰다는 내용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조선 후기 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이 세속화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어떤 갈래가 이를 주도했는지를

추론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

- ④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를 가치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반응의 산물로 보는 것은 글의 내용과 상반된 추론이다.
- ⑤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김홍연의 행각을 ‘왈짜’라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며 돈을 물 쓰듯 하던 젊은 시절과 산을 오르며 손수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말년의 시기를 구별하여 그 생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생소하게 여겨지는 ‘왈짜’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왈짜’로 일컬어지는 인물의 특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돈을 물 쓰듯 하였다는 것 등의 간략한 일화들을 배열하고 있다.
- ④ ‘어떤 이’가 글쓴이인 ‘나’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김홍연’의 뉘뉘미를 드러내고 있다.

6. [출제의도]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B]의 중장에는 입을 보러 가는 화자의 행동이 순서에 따라 병렬되어 있고, [C]의 중장에는 ‘석승’과 ‘유령’의 병렬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의 정감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와 [C] 모두 반어적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며, 삶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풍자하는 내용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행동을 희화화하지만, 화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은 아니다. [C]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 ④ [B]는 독백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C]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조 혹은 안타까워하는 어조를 감지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원망의 어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 ⑤ [B]와 [C] 모두 화자나 청자의 성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B]의 화자는 여성, [C]의 화자

는 남성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다고 해도 두 작품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는 아니다.

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에서 김홍연이 바위에 이름을 새겨서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려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화자가 자신이 입을 만나기 위해 다소 부박하게 움직인 행위를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음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체면 때문이라 볼 수 있고, 이는 개인적 삶의 가치를 옹호하는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김홍연이 자신의 취미를 위해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대두된 천박한 부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B]의 화자가 입에 대한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주는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③ [C]의 화자가 먹고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쓰면서 유흥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의 표현으로서, 이는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라는 조선 후기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⑤ [A]의 김홍연이 기생들과 어울리는 것과 [C]의 화자가 먹고 노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발달한 유흥 문화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